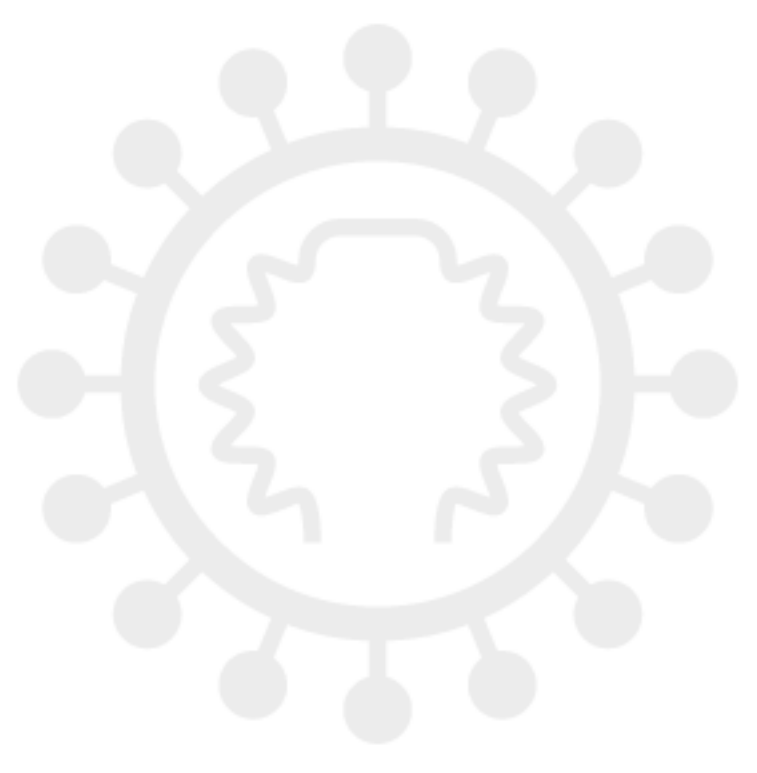




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발달장애인 진료 안내서(의료인용)

-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.
『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.
 -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인 신분증으로 유효합니다.
 - 복지카드에는 이름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 - 복지카드에는 장애 유형도 적혀 있습니다.
 -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묶은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카드에는 발달장애라고 표기되지 않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
이 두 가지를 보고 발달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* 복지카드에 정신지체, 발달장애로 표기된 명칭은 2007년 이전 등록 범주입니다.
-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다르지만, 자폐성 장애인의 70%는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본 안내서에서는 발달장애라고 부르고, 이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진료하면 좋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
 - 다만, 이들의 유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은 저마다 독특한 특성과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.한 사람 한 사람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응대하시면 됩니다.
- 신체장애인의 편의 증진은 휠체어, 수어, 점자 등 물리적인 편의 지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, 발달장애인은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서, 사람을 통한 관계적 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.

* 다양한 진료와 검진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의 "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매뉴얼 개발 연구"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"시각 지원판 / 의사소통 도움 그림·글자판(코로나19 선별진료소) 사용 매뉴얼(의료진용)"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_사람과 소통(언어치료 AAC센터) 연구개발

본 안내서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 "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매뉴얼 개발 연구" 자료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.



1 선별진료소에 온 발달장애인은 이렇게 지원합니다.

- 발달장애인이 혼자 온 경우, 진료와 검사에 보조인력 지원을 배치합니다.
- 가능한 혼잡한 장소를 피합니다. 기다릴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제공합니다.
- 불안감이나 혼잡한 상황으로 도전적 행동(자해, 타해, 소리 지름 등)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자(지원자)에게 대처 방법을 묻습니다.
- 위험하지 않으나, 지속적인 상동행동(같은 동작을 일정 기간 반복함)과 반향어(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말함)를 사용하는 경우 제지하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.
-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나 너무 가까운 거리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대화나 관찰의 경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합니다.
- 발달장애인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.
- 발달장애인의 경우 필요시 더 많은 보호자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.

2 발달장애인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면 좋습니다.

각자 다른 의사소통 방식

- 많은 발달장애인이 말이나 음성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많은 발달장애인이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.
표정 또는 어떤 몸짓으로 자신의 좋고 싫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
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
- 많은 경우 발달장애인은 각자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
 - 선별진료소에 온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, 가능하다면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지 등에 대해 주변 사람(부모, 복지관 직원 등)에게 확인하면 됩니다.
 - 또한, 좀 더 친해지면 의사소통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.





발달장애인은 소음과 감각자극이 많은 환경을 어려워합니다.

- 발달장애인은 소음이나 빛 등 여러 자극을 받으면 힘들어합니다.
작은 소리에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많은 사람이 있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불안증이 높아지고, 의사소통이 더 어렵습니다.
- 발달장애인에게는 선별진료소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로 진료 위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처음 대면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.

- 누구나 그렇듯 자신을 칭찬하고,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여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.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.
- 선별진료소는 비장애인에게도 불안과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.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렇습니다.
더군다나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을 매우 힘들어합니다.
- *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은 2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* 발달장애인을 만나자마자 평소대로 바로 진료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
- * 의료진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*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걸어주거나 발달장애인 환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초기 라포르(Rapport, 상호신뢰관계)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
- * 또한,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
발달장애인 스스로 상황을 이해해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.





표현은 쉽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.

-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.
(말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, 시각적 자료나 글로 써서 소통을 시도합니다).
- 이중 부정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
"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!" 보다 "이렇게 해요!" 라고 이야기합니다.
- 은유적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
"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요" 보다 "괜찮아요" 라고 이야기합니다.
- 가급적 한 문장에 한 가지 정보만 제공하면 좋습니다.
"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요" 보다 "움직이지 마세요", "앉아 있어요" 라고 정보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.

진료/검사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

"시각 지원판 / 의사소통 도움 그림·글자판(코로나19 선별진료소) 사용매뉴얼(의료진용)" 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_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

1. 선별진료소는 나쁜 세균이 있는지 검사하는 곳임을 알려줍니다.
검사를 하면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.

2. 선별진료소 안에서 지켜야 할 협조사항을 알려줍니다.

- 조용히 앉아 있도록 합니다.
- 의료 기구와 다른 사람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.
"의료 기구를 만지면 나쁜 세균이 생겨요."
"여기는 세균 검사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 가까이 다가가면 안돼요."





라포르 형성을 위해 이름을 부르고 격려해 줍니다.

- 발달장애인 검사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습니다.
- 검사와 치료를 하면 아프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.
-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줍니다.

미리 예측하게 해 주면 좋습니다.

-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, 왜 이것을 하는지 설명해줍니다.
"열을 잹니다. 잠시만 가만히 있어 주세요."
- "가래 검사를 합니다. 몸 안에 나쁜 세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. 목 안쪽에 있는 것을 튕!
하고 빨으시면 됩니다."
- "면봉으로 입속을 검사합니다. 몸 안에 나쁜 세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. 입을 벌려주세요.
잠깐 면봉으로 입속을 문지릅니다.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할 수 있습니다."
- "면봉으로 콧속을 검사합니다. 몸 안에 나쁜 세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. 머리를 뒤로하고
눈을 감아주세요. 잠깐 면봉으로 콧속을 문지릅니다.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할 수 있습니다."

검사 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.

- 말 보다는 글로 써서 알려 줍니다.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.
- 집에 가서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.
"집에 있으세요", "손을 씻어요", "마스크 쓰세요" 등
-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려줍니다.
"검사 결과는 언제(오늘 또는 내일 몇 시경), 어떻게(문자 연락 등) 알려드립니다"

